

◆ 북미

- 미국, 교통사고 상해 보험금 지속적 증가
- AIG, 서브프라임 관련 50억 달러의 손실 발표
- 미국 부유층, 여전히 재정적 위험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

◆ 유럽

- AXA, ING Seguros 인수
- Munich Re, 2007년 수익 39억 유로로 잠정 집계
- Aon, Marine Report 발표

◆ 일본

- 생보협회장, 주식시장 침체의 생보사 영향에 대한 입장 표명
- 메이지생명, 2010년 중기계획 발표
- 리소나은행그룹, 보험모집인 대규모 채용

◆ 중국

- 중국, 1월 설해로 지급보험금 40억 위안 넘을 전망
- 타이완생명(臺灣人壽) 푸젠성 샤먼(廈門)에 합자회사 설립
- 중국 보험업계, 지난 해 고위관리자 102명 징계

◆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【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미국, 교통사고 상해 보험금 지속적 증가

- 미국 IRC(Insurance Research Council)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의료비 청구액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의 평균 경제적 손실액(의료비, 소득 감소분, 기타비용 등을 포함)은 2002년 5,520달러에서 2007년 9,662달러로 연평균 9%증가하였고, 일부 주에서 자동차 보험에 추가가능한 상해보험인 Personal Injury Protection(PIP)의 경우는 연평균 8% 증가하였음.
 - 반면, 소비자물가지수(CPI)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동안 3% 증가하는데 그쳤으며, 의료비의 CPI 증가율도 4%에 불과하였음.
- IRC에 따르면,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피해 정도는 평균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.
 - 이는 보다 비싼 대체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과 개별 진료비용의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.
 - IRC의 부회장인 Elizabeth Sprinkel은 의료 공급자들이 다른 부분에서의 비용 상승을 자동차 보험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러한 보험금 상승요인들은 자동차 보험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힘.
 - 그녀는 또한 이번 연구가 교통사고 상해 보험금 지급건수 감소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하며, 의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보험료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함.

(Insurance Journal, 2/13)

□ AIG, 서브프라임 관련 50억 달러의 손실 발표

- AIG가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에서의 잠재적 손실을 공개하면서 AIG가 최근 신용위기의 새로운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주가가 5년 내 최저로 하락하였음.
 - AIG가 공시(regulatory filing)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로 인한 위기가 보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호로 보임.
 - 지난 11월 세계최대 재보험사인 Swiss Re는 신용 디폴트 스왑(Credit Default Swap, CDS)과 관련하여 11억 달러를 상각 처리한 바 있음.
 - AIG의 CDS와 관련한 손실은 시가로 평가할 경우 48억 8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Morgan Stanley는 분석하였으며 이는 지난 12월 AIG에 의해 추정된 손실의 세 배에 가까운 액수임.
- AIG는 CDS 포트폴리오의 가치평가에 대해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4분기 실적은 이달 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됨.
 - AIG의 외부 감사인 PricewaterhouseCoopers는 AIG가 CDS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계 방법에 있어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.
 - S&P 또한 AIG가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.
- 한편 AIG의 이번 문제는 2005년 CEO였던 Maurice "Hank" Greenberg를 물러나게 했던 회계문제를 상기시킴.
 - 당시의 회계문제는 책임한정재보험계약과 관련이 있었으며 상당한 비용을 야기하였음.
 - S&P는 AIG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오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목표주가를 하향하였고 주식에 대한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였음.

(New York Times, 2/12)

□ 미국 부유층, 여전히 재정적 위험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

- 최근 두 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백만 달러가 넘는 투자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미국인들이 여전히 재정문제와 안전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Fireman's Fund Insurance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백만 달러이상의 투자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가족의 안전과 주식, 부동산 등 투자자산의 재정적 위험인 것으로 나타남.
 - 또한 투자자산이 2백만에서 5백만 달러 수준인 중간 부유층의 경우에 있어 이러한 경향은 큰 것으로 나타남.
 - 또한 53%에 달하는 응답자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의 명의도용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%는 온라인 메신저나 채팅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음.
-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American Express Publishing과 Harrison Group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.
 - 12만 5천 달러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부유층들이 현금보유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Fireman's Fund의 Robert Courtemanche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들이 보험사가 보험의 제공뿐만 아니라 재무위험 보호 서비스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함.
 - Fireman's Fund의 설문조사에서는 50%의 응답자가 조언을 얻기 위해 독립보험설계사를 찾고 있으며 상위 부유층의 67%는 보다 자주 독립설계사의 조언을 듣는다고 밝힘.
 - American Express Publishing과 Harrison Group의 설문조사에서 2/3 이상의 응답자가 그들의 보험설계사의 조언을 따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5%는 보험설계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함.

(Insurance Journal, 2/12)

【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AXA, ING Seguros 인수

- 프랑스 AXA사는 ING그룹의 멕시코 보험 자회사인 ING Seguros를 15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발표함.
 - ING Seguros는 멕시코에서 3번째 규모의 보험회사로, 전체 시장에서 12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550만명의 계약자를 두고 있음.
 -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동 사는 자동차보험에서는 17%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고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19%의 시장점유율로 2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.
 - 2007년 보험료 수입은 19억 달러, 합산비율은 약 105% 정도로 예상됨.
- AXA사 측은 ING Seguros가 현재 6%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생명보험 시장에서 광범위한 판매망을 구축하여 7,500명의 설계사를 두고 있으며 그 중 1,500명이 전문설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고 언급함.
 - 인수가 완료되면, 멕시코가 북미지역임에도 “지중해영역유닛”으로 통합시켜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자사의 언더라이팅 노하우, 클레임 처리, 고객세분화, 서비스 및 브랜드 관리 등의 강점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함.
 - 또한, AXA의 전문기술과 ING Seguros의 강력한 판매망이 결합하여 최근 미개척분야(가정종합보험 등)의 개발 등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멕시코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.
- 한편, ING그룹은 손해보험, 건강보험 사업분야 등을 매각 중이며 사업확장이 기대되는 연금 및 퇴직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음.
 - 동 사의 회장은 이러한 매각이 ING사의 핵심 전문분야인 은행업, 투자업, 퇴직서비스에 집중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며 동 분야로의 자본이동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.

(Insurancejournal, 2/13)

□ Munich Re, 2007년 수익 39억 유로로 잠정 집계

- 유니크리 그룹은 2007년의 수익이 약 39억 유로(57.7억 달러)를 달성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발표함.
 - 이는 지난 8월 목표 수익으로 책정했던 35~38억 유로를 뛰어넘는 금액임.
- 동 사는 양호한 수익 발표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여 게시함.
 - 이사회는 주당 배당금액을 5.5유로로 결정하여 지난 해의 4.5유로에서 1 유로 증가하였음.
 - 2007년 5월부터 시작한 buy-back(주식재매입)도 일찍 완료되었으며 그 규모는 1천 5백만 주로 금액으로는 20억 유로에 달함.
 -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지난 4분기 손실이 1천만 유로에 불과하였음.
 - 2008년 1월 1일 재물보험 부문 재보험요율이 성공적으로 갱신됨.
 - 원보험 사업에서 생명보험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전개함.
- 동 사의 CFO는 자사의 보수적이고 신중한 투자정책으로 인해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위기와 글로벌 신용경색 및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고 지적했음.
- 또한 유니크리 그룹의 사업규모의 약 2/3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분야인 재물보험 재보험 사업은 1월의 계약갱신으로 약 85억 유로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거수한 것으로 나타남.
 - 동 사의 관계자는 평균 보험료가 2.8% 인하되었는데, 이는 최근 높은 경쟁적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평함.
- 유니크리 그룹의 원수보험사인 ERGO는 독일 본사 및 국제사업분야에서 양호한 생명보험 사업 전개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적으로 3.7%의 보험료 성장을 거두었다고 밝힘.
 - 독일에서의 성장률은 5%, 총 수입보험료는 16억 달러를 기록함.

(Insurancejournal, 1/30)

□ Aon, Marine Report 발표

- 영국 최대의 브로커 회사인 Aon은 “2008 해상보험시장리뷰”를 통해 해상 보험산업은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도 양호한 보험료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내렸음.
- 적하와 배상책임 시장은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료는 낮아지고 있으며,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적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당분간 원원 상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힘.
- 동 리포트에서 종목별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선박보험
: 요율이 5~10% 인하되고 있음. 보험회사들은 요율인하와 손실발생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기 힘들어 대부분은 선박보험 이외의 종목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. 다만 한국,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의 보험회사들은 국제적인 선박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.
 - 적하보험
: 충분한 담보력과 낮은 사고율로 인해 요율 갱신시 10% 인하되었으며 보험회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줌. 런던시장이 여전히 요율을 정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.
 - P&I(선주상호조합)보험
: 2006년 P&I풀에서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이 가격상승의 신호탄이 되었고, 2008년 2월 갱신될 선박소유주의 보험료 또한 10~20%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 - 배상책임보험
: 5~10%의 요율인하가 예상됨. 동 분야의 담보력은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허브를 중심으로 점점 증대되고 있음.

(Insurancejournal, 1/31)

【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생보협회장, 주식시장 침체의 생보사 영향에 대한 입장 표명

- 일본생명보험협회의 오카모토 쿠니에 회장(일본생명 사장겸직)은 지난 15일 일본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생명보험회사의 영향에 대해 입장을 밝힘.
 - 오카모니 회장은 “각사 모두,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등 건전성 개선에 관한 대비를 지속해 오고 있으므로 결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”라고 밝혀 이해당사자들을 안심시켰음.
 - 금융보험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경기전망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실적이 좋은 편이며, 미래의 수주도 계속 되고 있다고 밝힘.
 - 주가지표도 모든 시장지표를 감안하면 1만 5000엔정도의 수준이 안정적이라고 전망하였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에 의한 혼란 등으로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.
- 또한, 작년 12월 방카슈랑스 자유화에 의해 추가적으로 취급이 허용된 민영의료보험 등 보장성상품의 판매가 미진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힘.
 - 지금까지 취급하던 은행 상품에 가까운 연금상품과 달리 고객 설명의무에 관한 교육이나 판매체제의 정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민원이 확대되는 등 은행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며,
 - 은행도 판매권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부체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함.

(산케이신문, 2/16)

□ 메이지생명, 2010년 중기계획 발표

- 메이지야스다(明治安田)생명보험은 지난 14일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중기 경영계획을 발표함.
 - 보험판매의 주력인 영업직원 체제를 강화해 수입보험료 수준을 2008년 3월말 2.5조엔에서 2010년말 2.7조엔으로 늘릴 계획임.
 - 다만, 금년 3월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당분간 연기할 계획임.
 - 이번 경영계획은 영업직원의 개편을 핵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영업직원 A/S의 질과 양을 충실히 하여 유지계약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.
 - 이를 위해 영업직원의 급여제도에 신규계약 획득성과에 따라 변화하는 「비례」부분을 큰 폭으로 축소하고 최소 보증하는 「고정」부분을 확대하기로 함.
- 또한, 작년 12월에 완전 자유화된 방카슈랑스 외에 인터넷, 내점형 점포 등 새로운 판매채널 확충을 강화함.
 - 방카슈랑스는 은행과의 제휴에 의한 상품개발이나 판매지원을 강화하여 2010년에는 영업직원 이외의 판매채널 수입보험료 규모를 2,000억~3,000억엔으로 늘릴 계획임.
 - 한편 메이지야스다의 마츠오 겐지 사장은 기자 회견에서 주식회사 전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일단 연기를 결정하였으나, 주식회사는 “경영전략의 자율성이 높다”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2011년 이후 주식회사 전환에 대비할 생각이다“고 말함.
 - 메이지야스다생명의 오랜 과제였던 영업직원 개편이라는 장애물을 잘 넘을 수 있을지가 그 후의 성장 시나리오를 크게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.

(산케이신문, 2/15)

□ 리소나은행그룹, 보험모집인 대규모 채용

- 일본의 은행그룹인 리소나그룹의 리소나은행과 사이타마리소나은행은 2009년 3월말까지 생명보험 모집인 경력자 2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함.
- 일본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2월말 방카슈랑스가 완전 자유화 된 이후 내점형 점포 영업을 중시하고 있으나, 리소나그룹은 방문영업에 집중할 계획임.
- 각 은행들은 모두 생명보험회사의 경력직원을 중점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, 생명보험 모집인의 대규모 채용은 이번이 처음임.
- 생명보험 모집인에 의한 방문판매는 기존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이었으며, 은행에서의 판매는 내점형 영업을 중심으로 하였음.
- 리소나그룹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최선의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방문판매의 장점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미 방카슈랑스 완전 자유화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경력직원을 중심으로 270명을 판매 담당자를 채용한 바 있음.
- 완전 자유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3보험의 민영의료보험과 암보험을 지점에서 판매중이나 방문판매에 주력하기 위해 생명보험 모집인을 대규모 채용하기로 하였음.
- 리소나그룹의 생명보험 모집인은 중장년층 고객을 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계약 리모델링 등의 설계에 주력할 계획임.
- 다른 대형 시중은행들도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영업직원의 파견이나 경력직원의 채용 등으로 판매 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며, 미츠비시도쿄UFJ은행과 미츠이스미토모은행은 제3보험과 함께 고가의 보장성보험도 취급하고 있음.
- 일본의 은행들은 은행 고유의 대출수익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방카슈랑스와 투자신탁의 판매를 통한 은행 부수업무의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2/16)

【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중국, 1월 설해로 지급보험금 40억 위안 넘을 전망

- 중국 보감위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, 1월 31일 현재 중국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을 덮친 설해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약 4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 - 그 중 기 지급된 보험금은 3.5억 위안,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약 37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
- 이에 보감위는 2월 1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이번 설해가 손해보험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보험업계 스스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, 1급 긴급 예방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지휘본부 설치를 지시했다고 발표함.
- 지역별로 손실 추정규모를 살펴보면, 후난(湖南), 후베이(湖北), 구이저우(貴州), 광시(廣西), 장시(江西), 안후이(安徽) 등 지역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.
 - 이들 지역은 약 23만 건(전체의 45.5%)의 피해건수를 기록하며, 전체 예상 지급금의 절반인 18억 위안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.
- 피해 건수는 자동차보험이 약 43만 건으로 전체의 8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피해 금액은 전력보험이 약 10억 위안으로 건당 보험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.
- 보험회사가 파견한 긴급배상 인력만 총 4,011개 팀, 15,365명에 이르는 이번 설해는 중국의 자연재해 중 200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써 긴급 대피 인원이 과거 5년 평균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.

(제일재경일보, 2/5)

□ 타이완생명(臺灣人壽) 푸젠성 샤먼(廈門)에 합자회사 설립

- 중국 보감위 공고에 따르면, 타이완생명(臺灣人壽)은 중국 국내기업인 첸파지주(建發股分)와 푸젠성(福建省) 샤먼(廈門)에 합자 생보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, 보감위는 지난 주 설립인가를 내 준 것으로 나타났음.
- 이에 따라 타이완생명과 첸파지주는 푸젠성 현지에서 구체적인 설립 작업에 들어갔는데 타이완생명과 첸파지주는 각각 자본금 1.2억 위안을 투자(총 납입자본금 2.4억 위안)하여 50:50으로 합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임.
 - 설립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,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연내에 영업개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.
- 중국 대륙에 진출한 여타 타이완 기업과는 달리 타이완생명의 중국 진출은 많은 난항을 겪은 바 있음.
 - 첸파지주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도 타이완생명은 난팡항공(南方航空), 장홍전기(長虹電器) 등과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, 상하이국제그룹과 손잡고 중바오캉렌생명(中保康聯人壽) 지분인수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한 경험이 있음.
- 한편, 타이완생명의 합자회사 설립으로 중국에 진출한 타이완 보험사는 총 4개사로 늘어났음.
 - 중국 진출 허가증을 취득한 타이완 보험사는 생보사 2개(타이완귀타이생명(臺灣國泰人壽), 신광생명(新光人壽))와 손보사 1개(타이완귀타이보험(臺灣國泰世紀物產保險))이며, 이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타이완귀타이생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설립준비 단계에 있음.

(상해증권보, 2/14)

□ 중국 보험업계, 지난 해 고위관리자 102명 징계

- 중국 보감위에 따르면 지난 해 각 지역 보험감독국이 1,271개 보험회사 분/지점과 보험 중개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, 영업비 허위지출, 부당경쟁, 과대광고, 사기, 불법경영, 단체보험 관리부실 등의 불법/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813개 분/지점과 중개회사에 대해 830회 행정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음.
- 보감위는 지난 한 해 동안 1,228개 감사팀을 구성하여 연인원 4,378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,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이 363개(11.3%), 손해보험이 606개(22.2%), 기타 보험업 종사기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1,204건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음.
 - 행정처벌 건수는 지난 해 대비 약 93.5% 증가하였으며, 유형별로는 고위관리자 경질 102명(59.4% 증가), 벌금 3,055만 위안(103.9% 증가), 허가취소 12건(100% 증가), 신규업무불허 56건(1,020% 증가), 경고 246개사 360명 등임.
- 행정처벌을 받은 보험회사나 중개기구는 상당수가 공금을 개인용도로 이용하였거나, 일부는 고액의 수당이나 리베이트 지급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.
 - 보험대리인(보험설계사)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수익을 과대계상하거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,
 - 단체보험 업무는 장기보험 가입자를 단기상품으로 임의변경 하거나 불법해약, 고수익보장, 연령초과자 가입허용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음.

(매일경제신문, 2/13)

【 Financial Key Indicators 】

구분		07년말	08.2.1(금)	08.2.8(금)	08.2.15(금)	전주대비
금리 (%)	韓 국고채(3년)	5.74	5.05	5.14*	5.02	-0.12
	美 10년국채	4.03	3.59	3.64	3.77	+0.13
	英 10년국채	4.51	4.47	4.43	4.60	+0.17
	日 10년국채	1.51	1.43	1.42	1.46	+0.04
주가	韓 KOSPI	1,897.13	1,634.53	1,696.57*	1,694.77	-0.11%
	韓 KOSDAQ	704.23	612.57	642.35*	651.57	+1.44%
	美 DJIA	13,264.82	12,743.19	12,182.13	12,348.21	+1.36%
	美 Nasdaq	2,652.28	2,413.36	2,304.85	2,321.80	+0.74%
	英 FTSE	6,456.90	6,029.20	5,784.00	5,787.60	+0.06%
	獨 DAX	8,067.32	6,968.67	6,767.28	6,832.43	+0.96%
	佛 CAC40	5,614.08	4,978.06	4,709.65	4,771.79	+1.32%
	日 Nikkei225	15,307.78	13,497.16	13,017.24	13,622.56	+4.65%
	中 상해종합	5,261.56	4,320.77	4,599.70*	4,497.13	-2.23%
	대만 가권	8,506.28	7,673.99	7,673.99**	7,876.37	+2.64%
	홍콩항생	27,812.65	24,123.58	23,469.46***	24,148.43	+2.89%
환율	원/달러	938.20	945.50	942.00*	944.60	+2.60
	원/100엔	833.33	888.04	882.89*	876.74	-6.15
	엔/달러	112.58	106.47	106.69*	107.74	+1.05
	달러/유로	1.4722	1.4860	1.4826*	1.4640	-0.0186
	위안/달러	7.3041	7.1822	7.1919*	7.1900	-0.0019

주 : *는 2/5, **는 2/1, ***는 2/6 기준임.